

2011년도 인쇄사 기업경영 분석 “인쇄기는 도는데 남는 게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2011년도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은 2010년 밀바닥까지 추락한 이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평균보다 크게 낮아 인쇄사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09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2010년부터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제조업 및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성장성〉

(출처: 한국은행) (단위: %)

항목명	분야	2010년	2011년
총자산증가율	제조업	11.82	10.7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75	6.59
유형자산증가율	제조업	11.22	9.8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14	5.45
유동자산증가율	제조업	10.46	12.0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59	5.95
재고자산증가율	제조업	20.32	17.8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0.40	8.21
자기자본증가율	제조업	18.04	10.1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10	13.76
매출액증가율	제조업	18.49	13.5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9.87	6.36

인쇄업, 총자산 늘고 매출액 감소... 과잉투자 점검 필요

2011년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총 자산과 유형자산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총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과 유형자산을 살펴보면 인쇄업은 늘고, 제조업은 줄었지만 인쇄업은 여전히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자산증가율’은 기업의 경영척도 및 기업활동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낸다. 제조업은 2010년 11.82에서 2011년 10.70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은 0.75에서 6.59로 상승했다. 인쇄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상승했지만 전년도인 2010년 성장률이 0%대여서 여전히 제조업의 절반정도에 불과했다.

‘유형자산증가율’은 토지,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유형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건물, 토지, 공장, 기계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인쇄업의 유형자산은 2010년 1.14에서 2011년 5.45를 기록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제조업 평균인 9.80에 한참 못미쳐 쫄쫄 얼어붙은 인쇄업의 투자심리를 대변했다.

‘재고자산증가율’은 기업이 판매 또는 제조, 서비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으로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의 재고와 매출액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하게 된다. 2011년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재고자산은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해 8.21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증가율’은 자기자본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견실하다는 뜻이다. ‘매출성장률 > 자기자본이익률’이 가장 좋은데, 매출성장률이 자기자본이익률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기

자본이익률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성장률 < 자기자본이익률’이면 자기자본이익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즉, 이 비율의 차이가 자기자본이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자기자본증가율’은 2010년 6.10에서 2011년 13.76으로 성장했으며, ‘매출액’은 2010년 9.87에서 2011년 6.36을 나타냈다. 자기자본증가율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매출성장률 > 자기자본이익률’이었으나, 2011년에는 ‘매출성장률 < 자기자본이익률’을 나타내 ‘자기자본이익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비교하면 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만약 매출액증가율보다 총자산증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자산에 대한 과대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매출액 > 총자산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11년에는 총자산증가율의 증가율이 소폭이지만 매출액보다 높아 인쇄사가 자산에 대한 과대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과 유형자산을 살펴보면 인쇄업은 늘고, 제조업은 줄었지만 인쇄업은 여전히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 및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수익성〉

(출처:한국은행) (단위:%)

항목명	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제조업	5.79	7.93	6.0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60	2.53	3.91
총자산순이익률	제조업	4.70	6.51	4.6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18	1.65	2.89
기업순이익률	제조업	6.17	7.89	6.0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08	3.72	4.95
매출액순이익률	제조업	4.63	5.71	4.02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18	1.52	2.59
매출액영업이익률	제조업	5.83	6.72	5.5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10	3.25	3.88
매출원가대매출액	제조업	82.86	82.14	84.0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0.37	80.63	80.34
고정비대매출액	제조업	35.17	31.42	29.1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43.72	40.92	38.56
재료비대매출액비율	제조업	53.43	54.16	56.4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9.27	40.66	40.91
금융비용대매출액	제조업	1.44	1.20	1.1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28	1.91	1.84

2009년 마이너스 수익에서 2010년부터 플러스로 전환

기업경영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준다. 이중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의 총 자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09년 -0.18로 총자산이 감소했으나 2010년 1.65, 2011년 2.89를 기록해 2010년부터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을 비교해보면 2010년의 경우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은 제조업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제조업의 61% 수준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조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 경영의 손익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지표는 ‘기업순이익률’인데, ‘기업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과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 기업의 최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기업순이익률’은 2009년 2.08, 2010년 3.72, 2011년 4.95를 나타내 작게나마 계속 상승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

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9년 3.10, 2010년 3.25, 2011년 3.88을 나타내 ‘기업순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작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비용’은 조업도에 관계없이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므로 기업경영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은 2009년 2.28, 2010년 1.95, 2011년 1.84로 조사돼 금융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제조업 평균보다는 높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차입금의존도 낮아지지만 여전히 ‘불안’

안정된 경영을 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는 필요악이다. 그런데 자기자본 비율은 줄고, 부채와 차입금이 많아지면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경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은 소폭이나마 자기자본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부채와 차입금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및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안정성〉

(출처:한국은행) (단위:%)

항목명	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자기자본비율	제조업	46.13	48.01	47.8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0.31	30.95	32.57
유동비율	제조업	115.66	116.42	116.7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93.89	94.64	97.48
당좌비율	제조업	89.15	87.34	86.0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2.33	81.85	84.53
비유동비율	제조업	123.99	120.12	119.4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76.85	171.43	164.59
부채비율	제조업	116.79	108.28	109.1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29.88	223.06	207.04
차입금의존도	제조업	25.08	24.60	25.4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5.69	35.38	34.34

항목명	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제조업	1,249,130,745	1,480,206,310	1,682,164,68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5,631,533	6,132,160	6,468,673
매출원가	제조업	1,035,037,771	1,215,891,078	1,413,886,86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4,526,082	4,944,550	5,197,044
매출총손익	제조업	214,092,974	264,315,232	268,277,82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105,451	1,187,611	1,271,630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업	141,277,966	164,785,236	174,497,292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930,786	988,461	1,020,668
영업손익	제조업	72,815,008	99,529,996	93,780,52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74,665	199,150	250,962
당기순손익	제조업	57,779,482	84,512,442	67,543,87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0,245	93,377	167,70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표본 사업체수는 2009년 2603개사, 2010년 2603개사, 2011년 2664개 사임

‘자기자본비율’은 총 자본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다.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이다. 제조업의 경우 2009년 46.13, 2010년 48.01, 2011년 47.80으로 이상적인 비율인 50%에 가깝지만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경우 2009년 30.31, 2010년 30.95, 2011년 32.57을 나타내 30% 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유동비율’은 단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 취급 시 수신자의 단기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돼 은행가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유동비율은 2009년 93.89, 2010년 94.64, 2011년 97.48을 나타내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유동비율’은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얼마나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비유동비율은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정적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제조업이 120 내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비유동비율’은 2009년 176.85, 2010년 171.43, 2011년 164.59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인쇄업 경영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조사는 ‘부채비율’이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229.88, 2010년 223.06, 2011년 207.04를 기록했는데, 이는 고가의 인쇄기 구매에 따른 리스료 부담 상승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인쇄업, 1년 교박 일해도 6천만원 턱걸이

그렇다면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수익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매출총손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매출액은 2009년 5조6315억3300만원, 2010년 6조1321억6000만원, 2011년 6조4686억7300만원을 나타냈다. 이는 제조업이 2011년 1682조1646억8400만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3.8%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다. 게다가 ‘매출액’에서 종이, 잉크 등 재료비 등의 ‘매출원가’를 제하면 2011년 인쇄사의 손익은 1조271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손익은 2009년 1746억6500만원, 2010년 1991억5000만원, 2011년 2509억6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09년 -102억4500만원, 2010년 933억7700만원, 2011년 1677억80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사업체수로 나눠보면 1개사 평균 2009년에는 -393만원, 2010년 4054만원, 2011년 6295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3695만원인데, 2011년 인쇄사 당기순이익은 대기업 신입사원 2명 연봉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인쇄사 2011년 당기순이익은 6295만원으로 대기업 신입사원 2명 연봉에도 미치지 못했다.